

울진 불영사 의상전() 연구

A Study of Uisangjeon in Uljin Bulyeongsa Temple

저자 (Authors)	손신영 Shon, Sin-Young
출처 (Source)	불교학보 86 , 2019.3, 169-196(28 pages) BUL GYO HAK BO 86 , 2019.3, 169-196(28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Institute for Buddhist Cultur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994519
APA Style	손신영 (2019). 울진 불영사 의상전() 연구. 불교학보, 86, 169-196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19/11/06 14:52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울진 불영사 의상전(義湘殿) 연구*

손신영

한국미술사연구소 책임연구원

- I. 머리말
- II. 의상전의 연혁과 위치
- III. 현(現) 의상전의 현상과 건축적 특징
- IV. 의상전의 의미
- V. 맺음말

* 2018년 9월1일 개최된 ‘제2회 천축산 불영사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한 것이다.

〈한글요약〉

우리나라 전통사찰에서 창건주를 기리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다. 전통사찰 대부분이 의상대사 혹은 원효대사에 의해 창건되었다는 연기 설화를 간직하고 있음에도 이 두분을 특별히 기리며 건물 편액을 그 이름으로 정한 경우도 거의 없다. 따라서 올진 불영사 의상전은 독보적이라 할 수 있다.

불영사의 현재 의상전은 2001년 해체수리 당시 발견된 상량문을 통해 ‘1867년, 인현왕후 원당으로 창건’된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나 17세기 말 인물인 인현왕후의 원당이 왜 19세기 중반에 창건되었는지, 인현왕후 즉 왕실인사의 원당이었던 건물이 의상전으로 바뀌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석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의상전에 대한 자료가 드물고, 현재 의상전 건물을 비롯한 19세기 중반 이후 불교 건축에 대한 가치 재고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불영사에서 의상전을 특별히 조성하여 기린 것은 의상대사를 부처님처럼 신성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언제부터 의상전을 조성하여 의상대사를 기렸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조선후기의 시주자 기자현을 통해 1616년에 처음 세워졌던 것으로 유추해보았다. 이후 다시 지어지고 수리되고 터만 남았다가 1810년에 또 다시 지어지는 과정을 겪었으나 이 역시 오늘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의상전은 연혁에 불분명한 점이 있지만, 한국사찰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창건주를 기리는 전각으로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4백여 년간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존하는 의상전은 1867년 인현왕후 원당으로 창건되었으나 1906년 이전에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하였고 1906년 이후로는 조사전으로 기능하며 칭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세기 언젠가 불영사의 전통을 따라 의상전이라 명명하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왕실의 원당으로 창건되었지만, 건축형식에 있어 19세기 왕실원당의 양상이 구현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19세기 불전건축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고, 건축년대와 건축장인의 이름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 19세기 중반 건축의 기준작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주제어 : 불영사, 의상대사, 의상전, 조사전, 인현왕후원당, 기자현, 왕실원당.

I. 머리말

현재, 우리나라 전통사찰에서 창건주를 기리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다. 전통사찰 대부분이 의상대사 혹은 원효대사에 의해 창건되었다는 연기 설화를 간직하고 있음에도 이 두 분을 특별히 기리며 건물 편액을 그 이름으로 정한 경우도 거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불영사의 의상전은 주목해야 하는 불전이다.

불영사의 현재 의상전은 2001년 해체수리 당시 발견된 상량문을 통해 ‘1867년, 인현왕후 원당으로 창건’된 사실이 알려져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¹⁾ 그러나 17세기 말 인물인 인현왕후의 원당이 왜 19세기 중반에 창건되었는지, 인현왕후 즉 왕실인사의 원당이었던 건물이 어떻게 의상전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석이 제기되지 못하고 있다. 의상전에 대한 자료가 드물고, 현재 의상전을 비롯한 19세기 중반 이후 불교 건축에 대한 가치 재고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불영사 의상전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의상전의 연혁과 위치

불영사에 대한 기록들은 불영사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현판 및 복장기문·『불국사지(佛國寺誌)』에 수록된 바·조선후기 문인들이 쓴 시(詩)와 기(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²⁾ 여기서는 이 자료들을 분석하여 의상전의 연혁을 구성해보고, 의상전의 위치를 추론해보고자 한다.

1. 의상전의 연혁

불영사 관련 기록 중 의상전이 언급된 가장 이른 자료는 1630년 임유후(任有後, 1601~1673)³⁾가 지은 <불귀사고적소지(佛歸寺古蹟小志)>로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이대형, 「불영사 의상전은 “인현왕후 원당”」, 《울진21닷컴》, 2002년 3월21일 (<http://www.uljin21.com/news/articleView.html?idxno=1796>); 박기련, 「불영사 ‘의상전’은 ‘인현왕후 원당’」, 《불교신문》, 2002년 3월23일(<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16502>); 심현용, 「천축산 불영사의 신자료 고찰」, 『佛敎考古學』 제5호(경주: 위덕대학교박물관, 2005), pp.21-52.
- 2) 현판 및 복장기는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공편], 『한국의 사찰문화재:경상북도Ⅱ 자료집』, (서울: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2008) 참조.

성원(性圓)스님이 법당과 동서의 선실(禪室)을 중창하고 정휘(正輝)스님과 지순(智淳)스님이 그 노력을 함께하였는데 기상공 자현이 재물을 시주 하였다. 의상전을 창건할 때 산맥이 휘감은 정상의 측백나무사이에 세운 글에 “대시주(大施主) 의정부 영의정 기자현”이라 하였다고 한다.⁴⁾

위의 인용문에는 불사(佛事)를 한 시기가 언제인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으나 ‘성원스님이 법당(法堂)과 동서선실(東西禪室)을 중창하였다’는 것을 통해 그 대략적인 시기를 유추해볼 수 있다. 불영사의 불사시기와 화주(化主)를 수록해 놓은 「성조잡물기용유공화주록(成造雜物器用有功化主錄)」⁵⁾에 따르면, 평안도(平安道) 용천(龍川)출신인 성원스님이 1578년 영산전·1585년 향로전 중수(重修) 불사에서 화주를 맡았으며 서전(西殿)과 영산전을 제외한 대부분의 불전이 임진왜란 때 불타버리자 1602년~1609년의 재건(再建) 불사(佛事) 당시, 선당(禪堂) 창건의 화주를 맡았던 것이 확인된다.⁶⁾ 이후로는 1616년 중발라(中鉢

- 3) 조선중기의 文臣으로 본관은 豊川이며, 호는 萬休이다. 1626년(인조 4)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으나 이듬해 동생 任之後와 숙부 任就正 등이 죽게 되자 벼슬을 그만두고 울진으로 내려가 학문을 연구하였다. 그 뒤 문장이 뛰어나고 至行이 있다는 조선들의 의론에 힘입어 1653년(효종 4) 장령으로 특채된 이래로, 1658년 종성부사, 1661년(현종 2) 담양부사, 1663년 승지를 거쳐 예조참의, 1672년 경기감사를 역임한 후 호조참판에 제수되었다. 死後,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金時習·吳道一과 함께 울진 孤山書院에 제향되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찬부 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4(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참조.
- 4) 최선일·여학編, 도해譯, 고경監修, 『울진 천축사 불영사 문화집』(서울: 온샘, 근간예정), “僧性圓重創法堂東西禪室正輝智淳與其勞奇相公自獻施財創義湘殿于廻龍之頂栢間書曰大施主議政府領議政奇云”. 한편, 이 기록은 『臥遊錄』(성남:국정신문화연구원 영인본, 1997)에서 「佛歸寺·天竺山」이라는 제목으로 확인되는데 몇 글자만 다를 뿐 동일한 내용이다. 그러나 천축산의 14경을 읊은 시는 수록되지 않았다.
- 5) 萬曆元年(1573)부터 일제강점기인 大正7年(1918)에 이르기까지 346년 동안, 불전·불상·불화·종·시루, 향로·전패·단청 기와 등 모든 소용물 조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化主가 기록되어 있다. 한편, 이 기록은 『佛國寺誌』에 있는데, 「成造雜物器用有功化主錄」 외에, 「佛影寺始創記」(1370), 「佛影寺事蹟記」, 「還生殿記」(1408), 「佛歸寺古蹟小志」(1630), 「天竺山佛影寺十王殿記」, 「圓通殿重修與靑蓮庵移建文」(1876), 「彌陀契文」(1905), 「佛影禪社結社安序」(1910), 「佛影寺修禪社方御序」(1929), 「佛影寺事蹟記」(1932), 「養性堂浮屠碑銘」(1738)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기록들의 출처와 발간 동기에 대해서는 장충식, 「佛國寺誌(外) 解題」, 『佛國寺誌』(서울: 아세아문화사, 1983), pp. 8~11 참조.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는 정명희, 「造成雜物器用有功化主錄」과 불영사의 불교회화, 『미술자료』 제86호(서울:국립중앙박물관, 2014), pp.76~109 및 송은석, 「울진 불영사의 불상과 조각승」, 『동악미술사학』 제17호(서울:동악미술사학회, 2015), pp.371~406 참조.
- 6) 「佛影寺事蹟碑記」(1933)에는 “性元又重創法堂及東西禪堂云”이라 하여, 성원스님에 의해 법당과 동서선실이 모두 중창되었다고 하였다. 이 비문은 1933년에 불영사 사중에 전해지는 바를 토대

螺)의 화주(化主)를 맡았던 바를 끝으로 성원스님 이름은 기록에서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내용을 토대로 보면 위의 인용문에서 언급한 불사 시기는 불전들이 재건되던 1602년~1609년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의상전이 이 시기에 다른 불전들과 함께 창건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의상전 창건에 영의정 기자현이 재물을 시주하였다는 구절이 있어 그가 영의정으로 재임했던 시기를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기자현(奇自獻, 1567~1624)은⁷⁾ 1614년 1월 19일부터 1617년 11월 26일까지, 약 3여 년간 영의정을 역임하였는데⁸⁾ 이 무렵 치병(治病)을 이유로 강릉에서 우거(寓居)했던 바도 확인된다.⁹⁾ 그러나 성원스님의 불사 이력과 기자현의 영의정 재임 기간은 일치하지 않는다. 하지만 원문을 띄어 읽기 하여 ‘성원스님이 화주를 맡은 불사에 기자현이 시주하고, 의상전 창건불사 당시에도 기자현이 시주하자 그를 기념한 기문을 써서 의상전 어칸에 걸어두었다’로 본다면, 성원스님이 법당과 동서선실을 중건하던 시기와 의상전을 창건하던 시기에 시차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렇게 본다면 성원스님이 화주(化主)·기자현이 시주(施主)하여 법당과 동서선실이 중창된 바도 영의정 기자현의 시주로 의상전이 창건된 것도 모두 수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시기는 중발라(中鉢螺)가 조성되던 무렵인 1616년 경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불귀사고적소지」 이후 의상전에 대해 언급한 기록은 「성조잡물기용유공화주록(成造雜物器用有功化主錄)」으로, 다음은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義湘殿 始創兼丹青 化主性衍 順治七年 庚寅(1650) 六月¹⁰⁾
- 義湘殿 重創兼丹青 化主學人 康熙七年 己酉(1669) 三月¹¹⁾
- 義湘主 一位 康熙二十六年 戊辰(1688) 四月日¹²⁾
- 義湘殿 重建 古基舊礎 化主 寺中 嘉慶15年(1810) 庚午

여기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성연(性衍)스님의 화주로 1650년에 의상전이 창건 및 단청되

로 작성된 것이므로, 보다 앞선 시기의 기록인 「成造雜物器用有功化主錄」을 불영사 佛事의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 7) 본관은 幸州. 초명은 自靖, 자는 士靖, 호는 晩全. 증조부는 應教 遵으로, 할아버지는 韓성부윤 大恒이고, 아버지는 應生이며, 어머니는 우찬성 林百齡의 따님이다. 기자현의 문집은 확인된 바가 없다.
- 8) 『光海君日記』[重草本] 74卷, 光海 6年 1月 19日(壬申); 『光海君日記』[重草本] 121卷, 光海 9年 11月 26日(丁亥).
- 9) 『光海君日記』[中草本] 112卷, 光海 9年 2月 7日(壬寅).
- 10)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成造雜物器用有功化主錄」, 『佛國寺誌』(서울: 아세아문화사, 1983), p.342.
- 11) 앞의 책, p.345.
- 12) 앞의 책, p.349.

었다는 것이다. 앞서 임유후의 「불귀사고적소지」를 통해 1616년 무렵 의상전이 창건된 바를 추론하였기 때문이다. 전통건축에 있어서 창건(創建)·중건(重建)·중수(重修)는 각기 ‘처음 건축’·‘첫 건축이후 그 자리에 다시 건축’·‘건축이후 수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기자현의 시주로 1616년 무렵 창건되었던, 즉 처음 지어졌던 의상전을 1650년에 중건이나 중수가 아닌 시창(始創)하였다고 한 바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성조잡물기용유공화주록」에 의하면 1616년~1620년의 불영사에서는 불교공예품들이 주로 조성되었음을 살필 수 있다. 따라서 이 기록만 본다면 이 시기 불영사에서는 불전이 지어지거나 수리되는 불사가 없었던 것으로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1630년 임유후의 기록을 통해 1616년 무렵, 기자현의 시주로 의상전이 새로 지어졌음을 유추할 수 있으므로 기자현의 시주로 지어진 의상전과 1650년에 지어진 의상전은 동일 건물일 아닐 수도 있다는 가정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위의 인용내용은, 1650년 창건된 의상전이 20여년 만인 1669년 학인스님에 의해 중창되고 단청되었으며 이로부터 또 다시 20여년 뒤인 1688년에 의상대사상이 조성된 바를 알려주고 있다.¹³⁾ 목조건축은 지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수리하고 관리해야 유지될 수 있으므로, 1669년의 중창 및 단청은 의상전이 지속적으로 기능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런데 의상전이 지어진 후 40여년이 지난 1688년에야 의상대사상(義湘大師像)이 조성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¹⁴⁾ 이와 관련하여 먼저 고려할 것은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 1653~1722)¹⁵⁾의 기록이다.

義相殿에 올라가니, 의상대사의 眞像이 보존되어 있었다!¹⁶⁾

13) 이 무렵에 불영사의 여러 상들이 집중적으로 조성되었다.

14) 11년 전인 1677년에 영산전의 삼존과 나한전의 나한상 등이 동시 조성된 바처럼, 1688년에도 각 불전의 필수요소인 聖像들 즉, 지장보살상과 좌우보처인 도명존자·무독귀왕·시왕·제석·장군·사자·관음상 등이 동시에 조성되었던 것이다. 이후로는 상이 새롭게 조성되기보다는 改金 혹은 改粉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어서, 17세기 후반의 불사가 오늘날 불영사의 근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15) 조선후기의 학자로, 서울 출신이며, 본관은 安東, 호는 三淵이다. 좌의정을 역임한 金尙憲의 증손자이고, 아버지는 영의정을 지낸 金壽恒의 아들이다. 영의정을 지낸 金昌集과 예조판서·지돈녕부사 등을 지낸 金昌協이 형으로, 조선후기 名門家이지만, 19세기 세도가 안동김씨의 先祖이기도 하다. 김창흡은 부친이 사사되자, 당대에 이단으로 여겼던 불교를 수용하여 山이나 山寺에 은거하며 참선하고 스님들과 교유하였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찬부 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성남: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참조.

16) 국학진흥사업추진연구회 편, 「遊天竺山錄-蔚珍」, 『臥遊錄』(성남: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pp.242. “次上義相殿 義相殿眞像在焉” 이 기록은 작자미상으로 알려져 있으나 金昌翕의 문집인 『三淵集』에 수록된 「蔚珍山水記」의 앞부분과 70여 자가 일치하므로 김창흡의 글로 볼 수 있다.

위의 내용은 삼연 김창흡이 1670년 초겨울에 울진의 산수를 유람하고 그 경관과 내력을 기록한 글에, 불영사를 방문했을 당시 의상전에 들러 대사의 眞像이 봉안되어 있었던 바를 적은 것이다. 「성조잡물기용유공화주록」에는 1688년에 의상대사상이 조성되었다고 했으며 이보다 18년 앞서 방문한 김창흡은 의상대사 진상이 있다고만 했다. 따라서 김창흡이 언급한 진상(眞像)은 초상화 즉 진영(眞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¹⁷⁾ 그렇다면 1670년 김창흡이 방문하였던 의상전은 1650년 지어져 1669년 중창된 직후, 의상대사의 상(像)없이 진영만 봉안되어 있었던 양상이 묘사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진영은 언제 조성된 것일까.

「성조잡물기용유공화주록」을 비롯하여 불영사 불사 관련 기록을 살펴보면 조각과 그림, 공예품이 각기 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조성되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조각은 앞서 살핀 바대로 1688년, 그림의 경우는 영산회탱·미타탱·달마탱 등이 조성되었던 1629년과 지장 및 시왕탱·제석탱·하단탱 등이 조성되었던 1681년을 고려해야 한다. 의상대사상이 조각이 집중조성되던 1688년에 이뤄진 작품이므로, 의상대사 진영 역시 그림이 집중조성되던 시기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김창흡이 보았던 의상대사 진영은 1629년 무렵 다른 불화들과 함께 일괄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기자현에 의해 의상전이 조성된 후 의상대사 진영이 조성되었지만 건물은 오래지 않아 퇴락되고 그림만 남아 있다가 1650년 새롭게 지어진 의상전에 다시 봉안된 것으로 유추된다.

김창흡의 방문기록 이후, 의상전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지만 「성조잡물기용유공화주록」에는 1810년에 이르러 옛터의 오래된 초석에 중건되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의상전은 1810년에 이르기 오래전부터 터와 석재만 남은 양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 의상전에 대한 기록은 두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1843년 기록된 「천축산불영사영산전상량문(天竺山佛影寺靈山殿上樑文)」에 언급된 바 대로 의상대사상(義湘大師像)이 개분되었다는 것이고¹⁸⁾ 다른 하나는 1906년의 <불영사 응진전 아미타불화(佛影寺 應眞殿

17) 眞像의 사전적 정의는 ‘진짜 모습 그대로의 형상’으로 조각인지, 회화인지 명확치 않으나 조선 후기 기록에서 眞像이 眞影의 의미로 쓰인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을 보면, 여기서의 眞像은 眞影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예컨대 郭守煥의 <龍門書堂重修記>에 따르면 “원래의 서당 동쪽에 祠宇를 건립하여 (송시열의) 眞像을 봉안하고 서당을 齋室로 하였다”고 하여 초상화의 의미로 眞像이라는 단어를 썼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에서도 『宣祖實錄』 宣祖 31年 戊戌(1598) 12月 29日(庚辰)에 “先告軍門, 摹其眞像, 建祠則從容處之”를 비롯한 여러 용례가 확인된다.

18) 「天竺山佛影寺靈山殿上樑文」, “道光拾參年 本寺喚月堂碧訓 持勸善文 周流四方 鳩財募功 十六尊像改粉時 義湘澄佛與觀音佛位 三陳明寂庵佛一位 合以同力大作佛事 善爲成就.” 또한 1906년의 「觀音佛腹藏改金發願文」에도 義湘祖師一位가 다른 상들과 함께 改粉된 바가 기록되어 있다. “應眞殿二十三位 彌陀像一位 觀音像二位 獨聖像二位 義湘祖師一位 合二十九位 改粉改彩改金新成也 而又 靈山後佛幀一軸 七星幀一軸 八部幀一軸 合三軸新畫成”

阿彌陀佛畫> 화기(畫記)에 기록된 바와 같이 ‘개분된 의상대사상이 조사전에 봉안되었다’는 것이다.¹⁹⁾ 전자는 의상대사상만 언급한 것으로 「성조잡물기용유공화주록」과 함께 고려해보면 의상전이 황폐화되기 전에 봉안되었던 의상대사의 상과 진영은 건물이 퇴락되면서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가 1810년 의상전이 중건된 이후, 1843년 개분·개채하여 다시 봉안되었음을 추정케 된다. 후자는 의상대사상을 의상조사(義湘祖師)라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사전(祖師殿)이라 하며 봉안 장소를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즉, 이 당시에는 의상대사상이 봉안된 곳을 의상전이 아닌 조사전이라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²⁰⁾

한편, 김창흡이 보았다는 의상대사 진영은 의상전이 퇴락하며 사라진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1932년 1월22일자 『관보(官報)』의 ‘사찰유재산(寺刹有財産) 목록’에 “의상탱(義湘幀)·원효탱(元曉幀)·청허탱(淸虛幀) 각 1축과 선사영탱(先師影幀) 6축”이 소장된 바가 수록되어 있어 단정하기는 어렵다.²¹⁾ 현재 의상전 내부에 봉안되어 있는 의상탱·원효탱·청허탱[休靜]·종봉탱(鍾峯幀)[사명당(四溟堂), 유정(惟政)]·법명(法名)을 확인할 수 없는 선사영탱(先師影幀) 등이 이 당시의 작품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관보의 목록과 거의 일치한다.²²⁾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울진 불영사의 의상전은 1616년 무렵 초창되고, 1629년에 의상대사 진영이 조성·봉안되었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1650년 들어 새롭게 지어져, 1669년 중창되었지만 1810년 이전에 퇴락되어 티만 남아 있다가 옛터에 오래된 초석을 기반으로 다시 세워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후, 1688년 조성된 의상대사상이 1843년 개분된 이래로 의상전 관련 언급은 더 이상 없고, 1906년 들어 다시 한번 의상대사상이 개분된 후 의상전이 아닌 ‘조사전’에 봉안되었다고 하여, 이 무렵 현재의 의상전이 조사전으로 바뀌었다는 것도 유추할 수 있다.²³⁾

19) 「佛影寺 應眞殿 阿彌陀佛畫 畫記」(1906), “義湘祖師改粉入彩同時奉安于祖師殿”

20) 불영사 관계 기록에서 조사전이 있다고 한 것은 1906년의 「大韓國江原道蔚珍郡天竺山佛影寺重修記」가 유일하다. 이 기문의 말미의 중수된 불전 목록 “大雄殿 十王殿 祖師殿 羅漢殿 觀音殿 山靈閣 上持殿 下持殿 黃華室 無量壽閣 梵鍾樓”가 기록되어 있다.

21) 『官報』 1932년 1월22일, 「寺刹有財産」中 佛影寺 貴重品 目錄

“… 義湘幀1軸, 紗製 高4尺3寸 / 元曉幀1軸 紗製 高3尺6寸 / 先師影幀6軸 紗製 高3尺6寸 / 淸虛幀1軸 紗製 高 3尺6寸 / 獨聖幀1軸 紗製 高 3尺6寸 … 중략 … 義湘祖師像1軀 玉製 坐像 高2尺2寸 …”

22) 이들 진영의 제작 년대는 물론, 의상전 내부가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이루어진 모습을 추정하는데 있어 하나의 기준 년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3) 이 조사전이 17세기부터 존재해 온 의상전에 편액만 바뀌어단 것인지, 이 무렵 새로 지은 건물인지는 불분명 하다.

2. 의상전의 위치

1) 인현왕후원당과 의상전



도 1. 인현왕후원당 상량문 겉종이



도 2. 인현왕후 원당 상량문 속종이

현재 의상전은 불영사의 중심사역에서 서쪽, 극락전과 응진전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위치가 17세기부터 기록에 보이는 의상전인지는 불분명하다. 그 보다는 현재의 의상전이 17세기에 창건된 의상전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쉽다. 왜냐하면 2001년 10월, 현재의 의상전을 수리하다가 서쪽 종도리바닥 사각 홈에서 상량문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²⁴⁾ (도1, 도2) 일반적인 상량문에는 ‘건물을 짓거나 수리하면서 간단한 건물 연혁과 공사 이유 및 날짜 · 공사관계자 등’이 기록되는데, 불영사의 현 의상전에서 발견된 이 상량문에는 현재 불전과 관계없는 조선 제 19대 왕 숙종의 계비, 인현왕후의 원당으로 1867년 창건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 내용에 따르면 불영사가 인현왕후와의 인연으로 왕실원찰이 된 것으로 추론해 볼 수도 있다. 조선후기 왕실에서는 왕릉 인근의 사찰을 조포사(造泡寺)로 지정하고, 원거리에 있는 지방 사찰을 그 속사(屬寺)로 지정하여 왕릉에서 거행되는 기신재(忌晨齋) 등에 소요되는 물자 및 부역을 제공토록 하였다. 그러나 불영사가 조포사 또는 조포속사(造泡屬寺)로 지정되었던 바는 확인되지 않는다.²⁵⁾ 따라서 1867년(고종4), 동해(東海)에

24) 심현용, 앞의 논문 「천축산 불영사의 신자료 고찰」, p.22. 상량문은 한지로 싸인 겉종이 안에 든 속종이로, 겉종이와 속종이에 모두 해서체 墨書가 있다. 크기는 겉종이가 가로 58.4cm 세로38cm 속종이가 가로 59.5cm 세로59.2cm로, 속종이가 약간 더 크다. 신대현, 『천축산 불영사』(서울: 대한불교진흥원, 2010), p.148.

25) 인현왕후릉은 숙종릉·인원왕후릉과 함께 明陵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西五陵에 위치하며 조포사

가까운 불영사에, 17세기 인물인 인현왕후의 원당(願堂)을 창건하였다는 것은 갑작스럽고 엉뚱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상량문의 작자는 다음과 같이 불영사와 인현왕후와의 인연을 설명하였다.

예로부터 전해오던 말들을 모아 전하건대, 본사의 산천초목과 스님들이 두루 聖后[인현왕후]의 은덕을 입어서 지금까지 지탱해 오고 있다고 한다. 마음속에 그리워 한 것이 몇 년이나 되었으며 조바심을 낸 것이 얼마 간 이겠는가²⁶⁾

즉, 불영사에는 인현왕후의 후원으로 사중이 유지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오래 전부터 인현왕후를 기리기를 원해왔다는 것이다. 인현왕후와 관련하여 불영사에 전해지는 기록은 모두 20세기 들어 작성된 것으로 1933년의 <강원도울진군천축산불영사사적비(江原道蔚珍郡天竺山佛影寺事蹟碑)>와 1939년의 『울진군지(蔚珍郡誌)』가 있다. 먼저, <강원도 울진군천축산불영사사적비>에서 인현왕후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숙종대왕이 총애하던 궁희[장희빈]의 모함으로 왕비가 폐출되었다. 왕비가 자결하려고 마음먹었는데 꿈에 본 한 스님이 고하기를 ‘나는 불영사에서 왔으며, 내일 좋은 상서가 있으니 너무 우려하지 말라’고 하였다. 과연 이튿날 궁희가 꾸민 사건이 발각되어 죄가 밝혀져 사약을 받았다. 왕비[인현왕후]가 환궁하여 이런 사정을 알려 절의 사방십리를 하사하고 4개의 금표를 세워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하였다.²⁷⁾

즉, 인현왕후가 폐위되어 고난의 절정에 달했을 때 꿈에 불영사스님이 나타나 복위될 것을 예고해주었고 그에 대한 사례로 절의 땅을 보호해주는 사표를 세워주었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기록이 전무(全無)하지만, 설화로만 여길 수만은 없으며 1867년 인현왕후의 원당을 세웠다는 점에서 볼 때 허구적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1867년에, 인현왕후

는 서울 은평구의 守國寺로 기록되어 있다. 李王職 禮式課, 『廟殿宮陵園墓造泡寺調』(京城: 朝鮮總督府, 昭和25年(1930)).

26) “幸取古語遺傳則本寺山川草木緇徒偏蒙 聖后恩德 今支保云幢幢者幾年者畿日敢卜吉年好月良日令辰擇寺之西爽塏處 營建 願堂奉祝 聖德無疆 國家紹休聖瑞億萬斯年” 울진문화원 심현용학예연구실장의 釋門 인용.

27) 최선일·여학編, 도해 譯, 고경 監修, 앞의 책 『울진 천축사 불영사 문화집』 참조. <江原道蔚珍郡天竺山佛影寺事蹟碑>(1933), “肅宗大王寵宮姬姬 王妃慶黜妃欲自決夢見一僧告曰我自佛影寺來而明日有好祥瑞矣憂果翌日宮姬謀事發露伏罪而妃得還宮故賜寺山四面十里許四標謝佛恩云”

를 기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인현왕후는 1681년에 왕비가 되었으나 1688년 폐위되었다가 1694년 복위된 후, 1701년에 서거하였으므로 인현왕후를 기리는 원당은 17세기 말이나 18세기 초에 창건되었어야 했기 때문이다.

서거한지 166년이 지난 인현왕후를 갑자기 추모한 것은 무슨 이유에서였을까. 그것은 아마도 1867년 당시 불영사의 위상을 제고하면서 선양(宣揚)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인근의 여러 사찰들에서 각기 왕실과의 인연을 내세워 불사(佛事)의 후원을 받고 그로써 지역사회의 관심과 후원을 또 다시 얻게 되는 것을 보고, 불영사에서는 전해내려 오는 인현왕후 관련 소문을 기정사실화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인현왕후 관련 일화는 『울진군지』에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²⁸⁾ 즉, ‘인현왕후 민씨가 자결코자할 때 꿈에 천축산에서 온 스님 한분이 이들을 기다리라고 하여 과연 이들이 지나니 환궁하라는 명이 내려졌으며, 인현왕후가 꿈속에 나타난 이의 용모를 그려 불영사 사중에 찾아보게 하니 혜능대사와 닮았다는 것이다. 이에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불영사 사방의 10리 땅을 하사하였고 축원당을 지었다’는 것이다. 이는 1933년의 사적비보다 더 각색된 것으로, 그중에서도 꿈속에서 본 스님모습을 그리게 하니 혜능대사 용모였다는 것과 축원당을 지었다는 것은 처음 등장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불영사 寺中에 전해지는 기록에 보이지 않던 내용이 갑자기 등장한 것일 뿐만 아니라 출처가 없어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한편, 2001년 발견된 상량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 인현왕후원당이 1867년에 처음 지어졌다는 것과 그 위치를 알 수 있다.

이에 감히 좋은 해 좋은 달 좋은 날을 택일하여 절의 서쪽 높고 마른 땅에 원당을 건축하고, 억만년 동안이나 성덕(聖德)이 무강하고 국가가 평안하기를 봉축한다. 대청 동치 6년 정묘 4월 26일 주지 신하 승려 유찰은 머리를 조아리고 죄송한 마음으로 삼가 쓴다.²⁹⁾

위 인용문은 인현왕후원당이 대응보전이 자리한 중심 일곽의 서쪽 높고 마른 땅 즉 깨끗한 곳에 세웠다고 하고 있어, 현 의상전 위치와 부합한다. 높고 마른땅이라는 의미는 습기가

28) 南錫和 等編, 『蔚珍郡誌』(刊寫者未詳, 1939), p.24, “肅宗二十二年 丙子 仁顯王后閔氏被欲默(?)自盡夢一僧自言天竺山人勸令勿盡留待二日后二日果有恩命后既還宮以夢中所見畫其像令人物色寺有惠能大師貌像酷肖后乃賜四山十里更以謝佛恩更築祝願堂”

29) “幸取古語遺傳則本寺山川草木緇徒偏蒙 聖后恩德 今支保云憧憧者畿年者畿日敢卜吉年好月良日令辰擇寺之西爽塲處 營建 願堂奉祝 聖德無疆 國家紹休聖瑞億萬斯年營建願堂奉祝聖德無疆國家紹休聖瑞億萬斯年 大清同治六年丁卯四月二十六日住持臣僧有察頓首罪悚謹書” 울진문화원 심현용학예연구실장의 釋門 인용.

없는 곳이라 볼 수도 있지만, 기존 건물이 없던 나대지(裸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인현왕후원당이 1867년에 불영사에 처음 지어진 것이라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³⁰⁾

현재 의상전 내부에는 의상대사상이 중앙의 불단 위에 봉안되어 있고 불단의 향좌측으로는 종봉(鍾峯) 즉 사명대사의 진영·오른쪽으로는 이름을 모르는 선사의 영탱·좌측벽에는 원효·의상대사의 진영·우측벽에는 청허대사의 진영이 봉안되어 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1932년 1월 22일자 『관보』의 ‘사찰유재산(寺刹有財産) 목록’에 의상탱(義湘幀)·원효탱(元曉幀)·선사영탱(先師影幀)·청허탱(淸虛幀)이 들어 있는 것을 보면 현재 의상전 내부 장엄은 1932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³¹⁾ 이 진영의 주인공들이 모두 조사(祖師)에 해당하므로, 의상대사의 상과 진영 및 여러 스님들의 진영이 봉안된 전각은 ‘조사전’이라 칭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보면 1906년의 각종 불사 기록에 등장하는 조사전이 현재의 의상전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현재의 의상전 이력은 ‘인현왕후원당에서 조사전으로 바뀌었다가 그 이후 다시 의상전으로 바뀌었다’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인현왕후원당이 조사전으로 바뀌고 다시 의상전으로 바뀐 것인지는 전거가 없어 명확히 알 수 없다. 다만, 1906년의 대대적인 불사에 왕실인사들이 참여하였고, 의상전이라는 불전이 불영사에 전통적으로 조성되어 오던 전각임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이력의 변화원인을 유추하기는 어렵지 않다. 즉, 1906년의 불사 당시 대웅전(大雄殿)·시왕전(十王殿)·조사전(祖師殿)·나한전(羅漢殿)·관음전(觀音殿)·산령각(山靈閣)·상지전(上持殿)·하지전(下持殿)·황화실(黃華室)·무량수각(無量壽閣)·범종루(梵鍾樓) 등이 중수되고³²⁾ 여러 불상들이 새로 개분·개채될 때 의상대사상도 포함되었다는 것은³³⁾ 이 당시 이미 인현왕후원당도, 의상전도 유명무실한 상태였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당시 불사에 상공들이 대거 참여하였다는 바를³⁴⁾ 고려해보면 인현왕후원당은 당시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³⁵⁾

1906년 중수 무렵, 인현왕후원당이 조사전으로 활용된 이유는 불분명하나, 우리나라 사

30) 이밖에, 상량문의 기록자인 당시 주지 有察은 자신의 法名 앞에 “臣僧”이라 적고 있어, 스스로 조 선왕조의 신하를 자임했다. 이는 당시 불교와 왕실의 관계를 시사하는 것으로, 출세간의 승려가 국왕의 통치 체계 하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바를 보여준다.

31) 1932년 1월22일자 『官報』의 「寺刹有財産 불영사의 귀중품 목록」

“… 義湘幀 1軸, 紗製 高4尺3寸 / 元曉幀 1軸 紗製 高3尺6寸 / 先師影幀 6軸 紗製 高3尺6寸 / 淸虛幀 1軸 紗製 高 3尺6寸 / 獨聖幀 1軸 紗製 高 3尺6寸 … 중략 … 義湘祖師像 1구 玉製 坐像 高2尺2寸

32) 「大韓國江原道蔚珍郡天竺山佛影寺重修記」(19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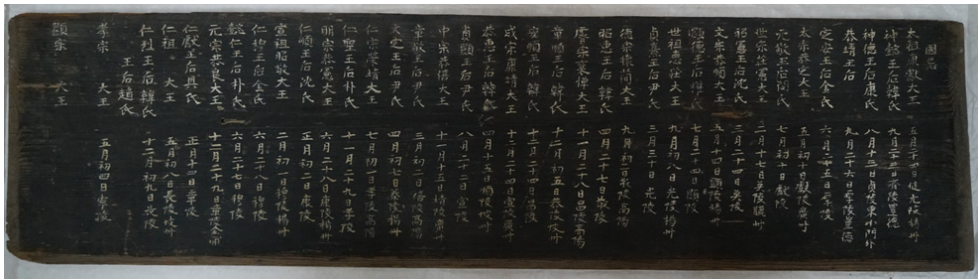
33) 「觀音佛腹藏改金發願文」; 「佛影寺 應眞殿 阿彌陀佛畫」 畫記

34) 「應眞殿 腹藏 大眾願文」; 「大韓國江原道蔚珍郡天竺山佛影寺重修記」

35) 원당이 있었다면 상공들의 시주가 그곳으로 유도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찰에서 왕실원당을 조사전 혹은 진영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예컨대 법주사의 영빈이씨 선희궁원당이 조사각으로, 해인사의 위축원당은 진영전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³⁶⁾ 따라서 불영사의 인현왕후 원당이 조사전 혹은 의상전으로 쓰이는 것은 기능적으로도 불교사찰의 관습상으로도 이상할 것이 없다.

2) 불영사와 조선왕실과의 관계



도 3. 불영사 소장 국기(國忌) 현판

현 의상전이 인현왕후의 원당으로 창건되었다는 것은 불영사가 조선왕실과 관계가 있었음을 유추케 한다. 현재 불영사에 전해지는 자료 중, 조선왕실과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 ① <국기(國忌)> 현판
- ② 「울진불영사명부진손상조성발원문(蔚珍佛影寺冥府殿尊像造成發願文)」(1688년 4월)
- ③ 「산신도복장발원문(山神圖腹藏發願文)」(1880년)
- ④ <응진전 복장(應眞殿 腹藏)> 중 「대중원문(大眾願文)」(1906년)
- ⑤ 「대한국강원도울진군천축산불영사중수기(大韓國江原道蔚珍郡天竺山佛影寺重修記)」 현판(1906년)
- ⑥ 「아미타회상도(阿彌陀會上圖)」 화기(畫記)(1906년)

①의 <국기>현판에는 태종에서부터 현종까지 조선왕조의 역대 왕과 해당 왕비이름이 적

36) 이밖에 순천 송광사의 위축원당은 관음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의성 고운사 위축원당은 기능이 없이 비어 있는 공간이다. 손신영, 「19세기 왕실후원 사찰의 조형성 연구」, 『강좌미술사』 제42호 (서울: 사.한국미술사연구소·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14), pp.53-62.

혀 있고, 현종을 제외하고는 기일과 능이름이 수록되어 있다.(도1) 작성 시기는 명기되지 않았지만 두 가지를 근거로 추론해볼 수 있다. 첫째, 마지막에 수록된 현종의 경우 기일 없이 이름만 적혀 있다는 점이다. 현종의 승하 이후 ‘현종(顯宗)’이라는 묘호(廟號)가 정해진 것은 1674년 8월 24일이기 때문이다. 둘째, 현판의 앞부분에 수록된 ‘공정왕후(恭靖王后)’는 ‘공정대왕’ 즉 정종(定宗)의 오기(誤記)라는 점이다. ‘공정’은 명(明) 황제가 내린 시호인데, 정종은 승하 뒤 곧바로 묘호가 부여되지 않아 오래도록 ‘공정왕’ 혹은 ‘공정대왕’이라 칭해졌고, ‘정종’이라는 묘호가 정해진 것은 1681년에 이르러서 이기 때문이다.³⁷⁾ 따라서 이 현판은 1674년 8월 24일 이후부터 1681년(숙종 7) 9월 18일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³⁸⁾ 아울러 <국가>현판은 강원도 설악산 신흥사와 삼척 영은사에도 전해지고 있어, 이 현판의 존재는 왕실관계 사찰임을 입증하는 자료라 하겠다.³⁹⁾

②의 「울진불영사명부전존상조성발원문」⁴⁰⁾에는 앞부분에 “조선국(朝鮮國) 경기도(京畿道) 낙양성(洛陽城) 함원전(含元殿) 이거(裏居) 대시주(大施主) 송씨절이(宋氏節伊) 대시주(大施主) 이씨영익(李氏英益) 대시주(大施主) 박씨노정 등(朴氏老貞等)”, 중간부분에 “복원(伏願) 주상전하문경무위일성월신(主上殿下文經武緯日盛月新) 왕비전하백신주서사방치화(王妃殿下百神奏瑞四方致和) 세자저하수분천수영관신봉(世子邸下秀分天粹英冠神鋒)”, 뒷부분 시주질(施主秩)에 “대시주송씨절이보체(大施主宋氏節伊保体) 대시주서씨선업보체(大施主徐氏善業保体) 대시주이씨영생보체(大施主李氏英生保体) 대시주박씨효정보체(大施主朴氏孝貞保体) 대시주최씨휘저보체(大施主崔氏輝杵保体)”라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 내용만 보면 경복궁 함원전에 거주하는 송씨·이씨·박씨가 주축이 되어 왕실을 축원하며 장애소멸과 복을 기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경복궁은 임진왜란 당시 소실되어 1865년(고종2) 재건(再建)공사가 개시되기 전까지 터만 남아 있었다.

37) 세종 초 정종이 승하한 뒤 묘호가 정해지지 않고 그 대신 ‘공정왕’ 혹은 ‘공정대왕’으로 일컫게 된 경위 및 숙종대 그의 묘호를追上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이현진, 『조선후기 종묘 전례 연구』(서울: 일지사, 2008), 3장 2절 참조.

38) 이는 조선후기 왕실의례 전문가인 이현진 연구교수(서울학연구소)의 교시를 받은 것이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39) 신흥사의 국기 현판에는 <國忌日>이라는 題下에 태종부터 영조까지 왕 및 왕비명과 기일이 수록되어 있어 신흥사가 오래전부터 왕실원찰이라 밝힌 貫虛富攄의 「龍船殿記」의 내용과 부합됨을 알 수 있다. 손신영, 「설악산 신흥사 극락보전 연구」, 『강좌미술사』 제45호(서울: 사.한국미술사연구소·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15), pp.82-84. 한편 삼척 영은사의 국기에는 태조부터 정조까지 기일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은희, 「삼척 영은사 불화에 대한 고찰」, 『문화재』 제27호(서울: 문화재관리국, 1994), p.337 참조.

40) 원문은 송은석, 앞의 논문 「울진 불영사의 불상과 조각승」, pp.375-376의 釋門 참조.

그렇다면 이 발원문의 함원전은 실재 경복궁의 함원전이라 볼 수 없다. 경복궁의 함원전은 강녕전(康寧殿) 서북쪽에 있던 전각으로⁴¹⁾ 세종(世宗)의 재위기간에 세워져⁴²⁾ 왕의 내전(內殿)으로 활용되다가 세조대(世祖代)에는 불상이 봉안되어 불사가 행해지는 내불당(內佛堂)으로 기능하였다.⁴³⁾ 따라서 함원전에 거주한다는 것은 왕의 내전에 거주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송씨·이씨·박씨는 당시 국왕을 수행하던 상궁들로 볼 수 있다.⁴⁴⁾ 아울러 불영사에 봉안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우학문화재단의 1681년 작(作) <감로탕> 화기에서 “대시주 상궁송씨절이(大施主尙宮宋氏節伊)·대시주 상궁박씨효정(大施主尙宮朴氏孝貞)”이라는 상궁이름이 일치하는 것과 증명(證明)을 “혜능비구(惠能比丘)”라 한 바가 파악된다. 따라서 1680년대 들어 불영사에 왕실발원불사가 이어졌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⁴⁵⁾

③의 「산신도 복장 발원문」에는 “봉위(奉爲) 주상전하성수만세(主上殿下聖壽萬歲) 왕비전하성수제년(王妃殿下聖壽齊年) 세자저하성수춘추(世子殿下聖壽千秋)”라는 구절이 있으나 시주자 명단이 수록되지 않아 상궁들의 후원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⁴⁶⁾ 그러나 “봉위(奉爲)”라 한 바를 통해 왕실의 후원임을 유추하기는 어렵지 않다.

④의 「대중원문」과 ⑤의 「대한국강원도울진군천축산불영사중수기」, ⑥의 「아미타회상도」 화기는 모두 1906년에 이뤄진 불사의 기록이다.⁴⁷⁾ ④에는 “봉축(奉祝) 대황제폐하임자생이씨성궁 안녕 용루만세(大皇帝陛下壬子生李氏聖躬 安寧龍樓萬歲)”라 한 뒤 시주질에 “청신녀임인생서씨(淸信女壬寅生徐氏)”를 비롯하여 상궁 10명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또 ⑤의 시주자 명단에는 11명의 상궁 이름이 있고 ⑥에도 8명의 상궁이름이 확인되는데, ④와 ⑥의 상궁명단이 일치한다. 따라서 1906년 당시 불사는 불상과 불화 조성은 물론, 늦은 봄부터 초겨울에 이르기까지 불영사 전체가 새롭게 단장되는 대규모 불사가 왕실발원으로 이

41)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편, 『서울사료총서 제3- 宮闕志』, (서울: 서울특별시, 檀紀4290(1957)), p.10, “含元殿在康寧殿西北”

42) 『世宗實錄』 124卷, 世宗 31年 6月 18日(丙寅)

43) 『世祖實錄』 3卷, 世祖 2年 1月 1日(辛未); 30卷, 世祖 9年 4月 7日(丙寅); 31卷, 世祖 9年 9月 5日(辛酉); 33卷, 世祖 10年 5月 2日(甲寅); 39卷, 世祖 12年 7月 15日(甲申); 39卷, 世祖 12年 9月 29日(丁酉); 42卷, 世祖 13年 4月 22日(丁巳); 46卷, 世祖 14年 5月 14日(癸酉)

44) 조선시대 왕실발원 불사에서 거주하는 곳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경우는 거의 없어 「蔚珍佛影寺冥府殿尊像造成發願文」의 표기방식은 이례적이다.

45) 이 작품을 불영사에 소장되었던 작품으로 보는 견해는 송은석, 앞의 논문 「울진 불영사의 불상과 조각승」, pp.377-378 참조. 화기는 고경스님 校勘·송천스님 外 編著, 『韓國의 佛畫 畫記集』(서울: 성보문화재연구원, 2011), pp.967- 968 참조.

46) 이 당시 都監이 有察이다.

47)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공편], 앞의 책 『한국의 사찰문화재:경상북도Ⅱ 자료집』, pp.304-311.

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불영사에서는 1681년·1688년·1880년·1906년에 왕실발원으로 불사가 이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중 주목되는 것은 1681년과 1688년이다. 불영사가 왕실관계 사찰이라고 할 때 늘 인현왕후를 언급하는데, 이 시기는 인현왕후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인현왕후는 1681년 5월2일 왕비에 책봉되었으나 1688년 10월28일 장희빈에게서 왕자가 탄생되는 것을 목도하였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조선시대에는 여염은 물론 왕실에서도 대를 잇는 것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어서, 이단으로 여긴 불교사찰에서 왕자탄생발원과 탄생한 왕자의 무병장수를 발원하는 기도가 봉향된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빈번했다. 따라서 1681년과 1688년의 불사는 왕실의 기대를 담아 이룩된 불사 즉, 새로 왕비를 맞이하면서 왕자탄생을 발원한 바와 장희빈의 회임이 왕자탄생으로 결실 맺기를 발원한 바로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왕과 왕비, 세자를 받들어 이룩된 1880년의 <산신도> 조성은 명성황후 민비가 빈번하게 행하였던 삼전(三殿, 고종·민비·세자[순종])의 축원불사 중 하나라 여겨진다. 이에 비해 1906년의 불사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무렵 대한제국은 일본에 의해 국권을 침탈 당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불영사는 조선왕실 공식 원찰은 아니었을지라도 숙종과 고종년간에 왕실발원 기도를 봉행하던 사찰이었다고 할 수 있다.

3) 의상전의 위치

앞서 연혁에 정리한 바를 고려하면 의상전은 1616년 무렵 처음 지어져, 1810년 옛터에 다시 지어지기까지 약 2백 여년 동안 존재감이 있었던 건물이다. 그러나 처음 지어질 당시 위치가 어디였는지는 불분명하다. 이 글에서는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기 보다는 기록을 통해 상대적인 위치를 추론해보고자 한다.

앞서 살펴 본 임유후의 <불귀사고적소지>에는 다음과 같이 의상전의 위치가 암시되어 있다.

① 의상전을 창건할 때 산맥이 휘감은 정상의 측백나무사이에 쓴 글에 말하기를 “대시주(大施主) 의정부 영의정 기자현”이라고 하였다고 한다.⁴⁸⁾

② 의상전

가장 훌륭하고 신 같은 스님의 전각

48) 최선일·여학編, 도해譯, 고경監修, 앞의 책 『울진 천축사 불영사 문화집』, “僧性圓重創法堂堂東西禪室正輝智淳與其勞奇相公自獻施財創義湘殿于廻龍之頂栢間書曰大施主義政府領議政奇云”

앞에 마주한 수석이 기이하네.
 상공이 부처님을 너무 좋아하니
 큰 공로는 창방의 현판에 보이네.⁴⁹⁾

이상과 같이 임유후는 의상전이 불영사의 불전들이 자리하고 있는 경내가 아니라 산줄기의 정상에 자리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그 앞에는 기이한 모양의 수석이 있다고 하였다.

이후, 의상전 위치를 시사한 이는 김창흡이다. 그는 1670년과 1708년 두 차례에 걸쳐 불영사를 방문하여 의상전을 둘러본 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 ① 의상전(義相殿)에 올라가니, 의상대사의 진상(眞像)이 보존되어 있었다.⁵⁰⁾
- ② 위쪽은 완만하고 아래쪽은 험준하며 사방을 둘러보면 중앙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의상전이다.⁵¹⁾
- ③ 산 정상에 있는 전각은 의상전이다.⁵²⁾
- ④ 북쪽으로 가니 좌망대에 이르고 … 중략 … 학소암이 있는데 그 천길 위 높은 곳에 의상전이 있다 … 중략 … 가마로 의상전에 올라 매우 가파른 땅에 이르렀다 … 중략 … 의상전 뒤는 송대이다. 고개를 구부리니 계곡 가운데 시냇물과 돌이 보이는데 맑고 장쾌한 기운이 역력하다.⁵³⁾

김창흡은 불교를 귀의처로 삼아, 일생동안 산을 유력하며 참선과 면벽을 일삼았던 문인이었기에 불영사를 방문한 바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즉 여러 번, 의상전에 가마를 타고 올라갔다는 표현을 썼고 구체적으로는 산 정상에 있다고 하였다. 이로써 김창흡이 방문했던 1670년과 1708년의 의상전이 동일 장소에 있음을 유추케 된다. 또한 ④에 언급된 학소는 임유후가 읊은 불영사의 14경 중 가장 마지막에 언급된 곳으로⁵⁴⁾ 김창흡은 학소암 위 높은 곳

49) “最勝神僧殿 前臨水石奇 相公偏好佛 功業見懸楣”

50) 국학진흥사업추진연구회 편, 앞의 책 『臥遊錄』, “次上義相殿 義相殿眞像在焉”

51) 金昌翁, 『三淵集』 卷之二十三, 「蔚珍山水記」 蔚珍 庚戌年[1670]十月四日, “夷上峻下 四望而中處曰義相殿”

52) 앞의 책, “殿之在山頂曰義相殿”

53) 金昌翁, 『三淵集』 卷之二十八 「嶺南日記」 戊子[1708] 二月 十六日, “… 北行至坐忘臺 … 중략 … 有鶴巢巖。其上千仞。卽義相殿也 … 중략 … 輿上義相殿。得地頗峻。而能復穩妥。殿後松臺。俯見谷中川石。歷歷清壯”

54) “鶴巢 鶴去丹霞迥 巢空歲月深 石門松桂冷 苔壁下秋陰”

에 의상전이 있다고 설명한 후, 가마를 타고 갔는데 그곳은 매우 가파른 땅이며 전각 뒤에는 송대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여기서 고개를 구부러 보면 맑고 장쾌한 계곡의 시냇물과 바위가 보인다고 하였다. 한편, 김창흡 역시 임유후처럼 의상전을 주제로 시를 지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영사 의상전
 용이 귀중한 연못을 희사하니
 스님이 따라서 태백으로 돌아왔다.
 숲속에서 경연하고 앉아 있으니
 산꼭대기 선방에 이르렀다.
 탑 그림자가 단학을 흔드니
 향로의 연기가 먼 산에 아른아른 보이는 푸른 빛을 짓는다
 돈대 계단의 가파름을 알고자 하니
 새집의 학이 고개 속이고 높이 나누나⁵⁵⁾

김창흡은 이 시에서 또 다시 의상전이 높고 가파른 곳에 위치함을 암시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정리해보면 17~18세기 의상전은 산 정상에 위치하여 고개를 속이면 시냇물과 기암괴석이 보이는 곳이고 경사가 가파르며 건물 뒤로는 송대가 있던 곳이라 유추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러한 입지가 참배자의 발길을 드물게 하여, 1810년 즈음에는 터만 남은 상황이 되는데 일조하지 않았을까 한다. 그리고 마침내는 의상전을 중심사역에 조성케 한 것으로 보인다.

Ⅲ. 현(現) 의상전의 현상과 건축적 특징

1. 현상

현재의 의상전은 정면3칸 측면 1칸의 이익공형식의 맞배지붕 겹처마 건물이다. 규모가 정면3칸이나 되지만 정면 어칸이 2.14m, 협칸이 1.69m, 측면이 3.09m로 실제 크기는 작

55) 김창흡, 『三淵集』 卷之八, “詩 佛影寺義相殿 龍以重淵捨。僧從太白歸。林中經宴坐。巖頂寄禪扉。塔影搖丹壑。爐煙結翠微。欲知臺砌峻。巢鶴俯高飛”

다.56) 기단은 자연석 막돌로 한벌대이며, 그 위로 덩벙주초를 올리고 원기둥을 세웠다.(도4)



도 4. 의상전 정면



도 5. 의상전 내부



도 6. 의상전 이익공



도 7. 의상전 측면

공포는 출목 없는 2익공 형식으로, 초익공은 양서형이고 이익공은 수서형인데 초익공에는 활짝 핀 연꽃이 조각되어 있다(도6). 이익공은 행공과 결구되어 보를 받치고 있는데 보머리에는 봉황머리 조각으로 장엄되어 있다. 내부에서는 전후면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데, 전면쪽에는 밑면이 초각된 사다리꼴 형태이고 후면쪽에는 삼각형 형태로 직절되어 있다.(도5)

행공은 전후면에만 배치되어 있으나 역시 전후면이 각기 다른 모습이다. 전면의 행공에는 마구리면과 하단면이 초각되어 있는데 익공의 하단면과 유사하며, 후면의 행공은 직절된 모습이다.(도8, 도9)

56) 문화재청, 『불영사 대응보전 실측조사보고서』(대전: 문화재청, 2000), p.404.



도 8. 의상전 정면 행공·화반·상벽



도 9. 의상전 후면 행공과 상벽

기둥 사이의 상벽에, 다포계라면 간포가 위치할 곳에 화반이 위치하고 있는데 정면에만 있고 배면과 측면에는 아무런 조형이 없다.⁵⁷⁾(도7, 도8) 아울러 상벽 역시 정면과 후면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데 정면에서는 행공과 화반이 돌출되도록 이들 뒤로 벽면이 형성되어 있다.(도8, 도9) 이에 반해 후면에서는 행공좌우로 상벽이 형성되어 입체감이 없는 모습인데, 이들 상벽은 모두 판재로 이루어져 있다.

가구는 3량가이며 도리는 굴도리이다. 대들보 위에는 판대공을 형성하고 그 윗부분에는

57) 익공과 수직으로 결구되어 있는 행공은 3포식 및 익공식 공포에서 주심에 놓인 도리방향의 첨차를 칭한다. 같은 공포에서 출목상에 놓인 것은 첨차라고 한다. 초익공에서는 익공과 교차하여 창방이 교차하여 결구되므로 행공이 사용되지 않으나 3포나 이익공에서는 상부 이익공과 직교하여 행공이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김왕직, 『알기 쉬운 한국건축용어사전』 (파주: 동녘, 2007), p.125.

종도리가 결구되어 있다.(도7) 창호는 정면에만 설치되어 있는데, 정면 어칸에는 청판세살이분합문, 협칸에는 청판 세살문이 달려 있으며, 후면과 좌우 측면은 모두 판벽으로 구성되어 있다.⁵⁸⁾(도4, 도7) 내부 바닥은 우물마루로 형성되어 있다. 천정은 반자를 치고 단청 되어 있으며, 처마내밀기는 전후면이 각기 1,275mm, 좌우면은 각기 1,065mm이다.⁵⁹⁾

2. 건축적 특징

의상전의 건축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5.18평에 불과한 작은 규모라는 점이다.

의상대사가 창건한 부석사에서 그를 기리는 전각으로 고려시대에 창건된 조사당과⁶⁰⁾ 비교해보면, 정면3칸 측면1칸·맞배지붕이라는 건축형식적 요소는 같지만 부석사 조사당은 바닥면적이 11.14평으로, 의상전의 2배 크기이다. 현재의 의상전이 1867년에 세워진 건물임을 고려하면, 19세기 말로 갈수록 불전의 크기가 작아지는 경향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공포에 있어서, 익공과 행공 모두 화려하게 연화조각이 되어 있다는 점이다.

19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공포를 비롯하여 불전 내외부의 장엄이 화려해지는 경향을 볼 때, 의상전 역시 시대양식을 따랐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셋째, 정면성을 강조한 점이다.

마구리와 하단부분에 연화조각이 된 행공과 화반이 정면에만 배치되어 있다는 점은 조선 후기 들어 불전의 전후면이 달리 장엄되며 정면이 강조되는 경향을 따른 것이다. 단, 의상전에서는 전후면의 익공 형식이 동일하다.

넷째, 벽체가 모두 판벽이라는 점이다.

19세기 들어 조성된 불전 중에는 벽체가 판재로 이뤄진 판벽구성이 많은데, 상벽까지 판재로 이뤄진 경우는 드물다.⁶¹⁾

다섯째, 맞배지붕이지만 풍판을 달지 않았다.

조선후기 들어 조성된 맞배지붕 불전은 대체로 부분전이며, 풍판을 달아 측면의 가구가

58) 판벽의 두께는 40mm로 실측된바 있다. 문화재청, 『불영사 대응보전 실측조사보고서』(대전: 문화재청, 2000), p.404.

59) 앞의 책 참조.

60) 부석사 조사당은 고려시대에 창건되어 1202년 단청, 1377년 중건된 바 있다. 문화재청, 『부석사 조사당 수리·실측조사보고서』(대전: 문화재청, 2005), pp.64-79.

61) 손신영, 「19세기 불교건축의 연구-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대학원, 2006), pp.135-136. 의상전의 상벽이 판재로 이뤄진 것은 후대의 보수일 가능성도 있다.

노출되지 않는 정돈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의상전 처럼 측면기구가 노출되도록 풍관을 달지 않은 경우는 부석사 조사당처럼 비교적 연대가 올라가는 건물에서 파악되는 형식이다.

여섯째, 창건시기와 건축관계자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점이다.⁶²⁾

대체로 조선후기 건축은 창건시기를 비롯하여 연혁과 건축관계자의 이름을 알 수 없으므로 불영사 의상전과 같이 창건년대와 관계자 이름이 분명한 것은 이 무렵 건축의 기준작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처럼 의상전의 건축 양상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19세기적 요소가 지배적인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현재의 의상전은 1867년 당시의 건축양식을 잘 반영하여 조성된 건물이라 하겠다.

IV. 의상전의 의미



도 10. 의상전 내부 의상대사상과 고승진영

창건주 의상대사를 기리는 전각인 의상전에는 내부에 의상대사상을 비롯하여 의상·원효·청허·종봉 및 당호가 없는 진영 등 총 5폭의 진영이 봉안되어 있다.(도10) 현재 조사전 기능을 함에도 의상전이라 명명한 것은 불영사의 전통을 따른 것이거나 창건주 의상대사를 특별히 기리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의상대사가 창건한 부석사나 낙산사에는 의상전이라는 불전이 없고 부석사에는 조사전에서 의상대사만 기리고 있어 대조적이다. 왕명으로 의상대사가 창건한 부석사이기에 의상대사를 특별히 내세우지 않아도 그 사실은 널리 알려지기 마련이었겠지만, 불영사의 경우는 저명한 의상대사가 창건하였다는 바를 선양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와 관련해서는 의상대사를 부처님에 버금가게 인식한 바가 주목된다. 즉 고려시대 말기인 1370년, 한림학사 유백유(柳伯儒)가 <천축산불영사시창기(天竺山佛影寺始創記)>에 다음과 같이 의상대사에 대해 기록해두었기 때문이다.

62) 都片手는 李日運, 副片手는 朴致文이며 都監은 당시 주지이던 有察스님이 맡았다. 심현용, 앞의 논문 「천축산 불영사의 신자료 고찰」, pp.24-25 참조.

“법사는 의봉(儀鳳, 676~678) 초기에 또 서쪽 산으로 들어가 부석사와 각화사 등을 세우고 15년간 두루 돌아다녔다. 어느 날 다시 불영사로 돌아오다가 선사촌(仙槎村)에 이르니 어떤 노인이 기뻐하며, ‘우리 부처님이 돌아오셨구나’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마을 사람들은 불귀사(佛歸寺)라고 전하였다… 중략… 화엄론에 이르기를 의상법사는 과거 금산보개(金山寶蓋)의 여래(如來) 후신(後身)이다. 원효법사는 현재 화엄지위(華嚴地位)의 대권보살(大權菩薩)이다. 이 때문에 이 두 법사가 머물렀던 곳이면 총림의 이름이 진실로 귀하고 또 중요한 것이다”⁶³⁾

이처럼 불영사가 불귀사라 불리게 된 내력에는 ‘부처님이라 여겨지는 의상대사’가 돌아왔다고 생각한 사람들의 인식과 ‘의상대사를 여래의 후신·원효대사를 보살’로 여기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다.⁶⁴⁾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앞서 살펴본, 임유휴가 지은 「불귀사고적소지」에 실린 ‘의상전’ 시(詩)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의상전
가장 뛰어난 신령스런 스님의 전(殿)
앞에는 기이한 수석이 놓였네
상공이 부처를 더욱 좋아하여
시주한 공로 창방에 걸려 있네⁶⁵⁾

이처럼 의상대사를 부처님에 버금가게 여기는 인식은 1370년 무렵 이전부터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1630년 임유휴가 이를 근거로 기문을 짓고 시로 읊은 것을 보면 불영사에서는 오래전부터 의상대사를 신성(神聖)스럽게 여겼던 바를 알 수 있다.

화엄10찰에 꼽히는 사찰이 아니면서 의상대사를 기리는 전각을 별도로 세워 명명한 것은 불영사와 의상대사의 관계가 특별하다는 것을 시사하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보인다. 성인으로 여겨지는 의상대사가 창건하였다는 바는 불영사의 위상을 정립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드높여주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상전은 창건주를 부처님에 버금가게 신성시하였던 불영사의 전통을 계승하고 선양하는 전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63) “法師儀鳳初 又入西山 創浮石覺華寺等 周遊十有五年 一日入佛影寺至仙槎 一老翁喜曰我佛故矣 自此里人傳曰佛歸寺… 중략… 華嚴論云 義湘法師者過去金山寶蓋如來後身也 元曉法師者現在華嚴地位大權菩薩也 是故此二聖居焉 則其叢林之名實貴亦重矣..”

64) 의상대사를 금산보개 여래의 후신이라 한 바는 『三國遺事』卷4 ‘義湘傳教’; 「洛山寺 創建說話」; 「梵魚寺 창건설화」 등에서도 확인된다.

65) “義湘殿 最勝神僧殿 前臨水石奇 相公偏好佛 功業見懸楣”

V. 맺음말

우리나라 사찰 중, 창건주를 기리며 창건주의 법명을 전각명으로 삼은 불전으로는 의상전이 거의 유일하다. 불영사의 창건주 의상대사가 세운 사찰들을 화엄십찰(華嚴十刹)이라 하여 유서 깊은 사찰로 꼽고 있지만, 불영사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화엄십찰을 비롯하여 의상대사가 세운 사찰들에는 의상전은 커녕 조사전도 조성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불영사에서 의상전을 특별히 조성하여 기린 것은 의상대사를 부처님처럼 신성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언제부터 의상전을 조성하여 의상대사를 기렸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조선후기의 시주자 기자헌을 통해 1616년에 처음 세워졌던 것으로 유추해 보았다. 이후 다시 지어지고 수리되었으나 터만 남아 있다가 1810년에 다시 지어지는 과정을 겪었으나 이 역시 오늘날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이처럼 의상전은 연혁에 불분명한 점이 많지만, 한국사찰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창건주를 기리는 전각으로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4백여 년간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존하는 의상전은 1867년 인현왕후 원당으로 창건되었으나 1906년 이전에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하였고 1906년 이후로는 조사전으로 기능하며 칭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세기 언젠가 불영사의 전통을 따라 의상전이라 명명하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왕실의 원당으로 창건되었지만, 건축형식에 있어 19세기 왕실원당의 양상이 구현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19세기 불전건축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고, 건축년대와 건축장인의 이름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 19세기 중반 건축의 기준작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1. 원전

『三國遺事』, 『世祖實錄』, 『宣祖實錄』, 『光海君日記』[重草本]
 李王職 禮式課, 『廟殿宮陵園墓造泡寺調』, 昭和25年(1930).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佛國寺誌』,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3.

2. 보고서·사전·총서류

고경스님 校勘·송천스님 外 編著, 『韓國의 佛畫 畫記集』, 서울: 성보문화재연구원, 2011.
 김왕직, 『알기 쉬운 한국건축용어사전』, 파주: 동녘, 2007.
 문화재청, 『불영사 대응보전 실측조사보고서』, 대전: 문화재청, 2000.
 문화재청, 『부석사 조사당 수리·실측조사보고서』, 대전: 문화재청, 2005.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공편], 『한국의 사찰문화재-경상북도자료집Ⅱ』, 서울: 문화재청·
 불교문화재연구소 2008.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편, 『서울사료총서 제3-宮闕志』, 서울: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57.
 최선일·여학 編/도해 譯/고경 監修, 『울진 천축사 불영사 문화집』, 서울: 온샘, [근간예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찬부 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4·17,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3. 단행본

국학진흥사업추진연구회 편, 『臥遊錄』,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金昌翁, 『三淵集』 1~3,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96.
 南錫和 等編, 『蔚珍郡誌』, 刊寫者未詳, 1939.
 신대현, 『천축산 불영사』, 서울: 대한불교진흥원, 2010.
 이현진, 『조선후기 종묘 전례 연구』, 서울: 일지사, 2008.

4. 논문

손신영, 「19세기 불교건축의 연구-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대학원, 2006.

_____, 「19세기 왕실후원 사찰의 조형성 연구」, 『강좌미술사』 제42호, 서울: (사)한국미술사연구소·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14, pp.53-62.

_____, 「설악산 신흥사 극락보전 연구」, 『강좌미술사』 제45호, 서울: (사)한국미술사연구소·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15, pp.82-84.

송은석, 「울진 불영사의 불상과 조각승」, 『동악미술사학』 제17호, 서울: 동악미술사학회, 2015, pp.371-406.

심현용, 「천축산 불영사의 신자료 고찰」, 『佛敎考古學』 제5호, 경주: 위덕대학교박물관, 2005, pp.21-52.

이은희, 「삼척 영은사 불화에 대한 고찰」, 『문화재』 제27집, 서울: 문화재관리국, 1994, p.337

정명희, 「造成雜物器用有功化主錄」과 불영사의 불교회화」, 『미술자료』 제86호,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14, pp.76~109.

5. 신문 및 잡지

『官報』, 1932년 1월22일.

박기련, 「불영사 ‘의상전’은 ‘인현왕후 원당」, 《불교신문》, 2002년 3월 23일.

이대형, 「불영사 의상전은 “인현왕후 원당”」, 《울진21닷컴》, 2002년 3월 21일.

<Abstracts>

A Study of Uisangjeon in Uljin Bulyeongsa Temple

Shon, Sin-Young

In the traditional Korean temples, the place to honor the founder is rare. It is said that most of the traditional temples were established by the great Buddhist monk Uisang or Wonhyo, but the names of the buildings were rarely named after the monks'. In terms of that, Bulyeongsa Uisangjeon in Uljin is unique. Through the Sangryangmun which was found during the dismantling in 2001, it is known that Bulyeongsa Uisangjeon was founded in 1867 as Won-dang of Queen Inhyun. However, there is no definite explanation as to why Won-dang of Queen Inhyun who had lived in the latter half of the 17th century was built in the middle of the 19th century, and why Won-dang of Queen Inhyun was replaced with Uisangjeon. It is because there was a lack of data on Uisangjeon and since the mid-19th century Buddhist architecture including Uisangjeon has not been reconsidered.

The reason why Uisangjeon was built in Bulyeongsa Temple is that Great Buddhist Monk Uisang was regarded as a sacred being such as a Buddha. It is unclear when Great Buddhist Monk Uisang was celebrated in Uisangjeon, but it was inferred that it was first established in 1616 by the donator, Ki-Ja-heon in the late of the Joseon Dynasty. Although Uisangjeon was rebuilt, repaired over and over, only the site of the building was left in 1810, when it was rebuilt. Unfortunately it does not exist today. As such, the history of Uisangjeon is uncertain, but it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been in a position to celebrate the founder of the temple, which can hardly be seen in Korean temples, and has existed for four hundred years until today.

The existing Uisangjeon was established in 1867 as the Won-dang of Queen Inhyun to honor, but it has already lost its function before 1906, and after that it has functioned as a Josajeon. It is believed that it was named as Uisangjeon following the tradition of Bulyeongsa Temple in the twentieth century. It was originally built to honor the royal family in the 19th century but it does not have the aspect of architectural style as Won-dang of Royal Families. However, it evidently h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19th-century Buddhist architecture.

Furthermore, the names of architecture craftsmen and the time of its construction are clearly identified, which is valuable because it can be used as a standard of architecture in the mid-19th century.

• **Keywords**

Bulyeongsa Temple, Great Buddhist Monk Uisang, Uisangjeon, Josajeon, Won-dang of Queen Inhyun, Ki-Ja-heon, Won-dang of Royal Families

논문접수일: 2019년 1월 30일, 심사완료일: 2019년 3월 5일, 게재확정일: 2019년 3월 7일.
